

연재기획-코로나 시대의 학생자치

학생자치, 변화의 요구 앞에서도 지켜내야 할 것은

김수혁 기자 sherk@khu.ac.kr

연재순서

- ① 학생자치가 걸어온 어제
- ② 학생자치가 마주한 오늘
- ③ 학생자치가 바라볼 내일

#. 코로나19 등장 이후, 지난 한 학기 동안 대학 사회는 전례를 찾기 힘든 재난 상황에서 큰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교육, 연구, 행정을 막론한 대학의 전 영역이 도전에 직면했으며 이는 학생자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학생자치가 마주한 도전은 보다 특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주한 위기의 정도와 범위에 견주었을 때, 학생자치 영역이 대응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너무나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면 쇄신을 요구하는 이 위기는 학생자치의 와해를 가속하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지만, 역으로 학생자치가 새로운 국면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7월 30일, 성공회대에서는 ‘코로나 이후의 대학, 그리고 학생자치’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학교 총학생회(총학)와 성공회대 총학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주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캠퍼스(서울캠) 최인성(생물학 2016) 회장은 발제를 통해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학생자치가 마주한 위기의 양상을 ‘관계 형성의 위기’, ‘주체 형성의 위기’, ‘담론 형성의 위기’ 세 가지로 진단했습니다. ‘관계 형성의 위기’가 학생들 간의 직접적인 만남과 교류가 어려워진 상황



급변하는 대학 환경에서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에 대응하고 새로운 의제를 포착해야 할 학생자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을 가리킨다면, ‘주체 형성의 위기’는 이로 인해 학생자치를 이끌어 나갈 자치조직의 구성 자체에 곤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학생자치의 내용이 될 현안과 논의들, 즉 자치 담론이 원활하게 형성되지 못하는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생자치의 위기가 코로나 19로 인해 새롭게 대두된 문제는 아닙니다. 학생자치조직이 자치 담론 생산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은 코로나 19 이전에도 누차 이어져 왔습니다. 윤성이(정치외교학) 교수는 “80년대는 권위주의 정권 치하였고 90년대 또한 그 연장이라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독재타도’, ‘민주화 완성’ 같은 단일 거대담론으로 학생사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었다”면서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을 이루고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학생사회 내의 요구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1651호, 『총학위기론』 해결의 실마

리는 역할 규범에 대한 새로운 합의.) 총학에 대해 “선거와 축제 때만 보인다”는 농담 아닌 농담이 드물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 19가 불러온 이례적인 상황은 총학에 보다 분명한 역할과 존재감을 부여했습니다.

코로나 19 유행으로 학교 운영의 전 부분이 혼란을 겪으면서 수업과 시험의 대면/비대면 여부, 학사일정 조정, 평가방식, 등록금 환급 등 학교 당국과 학생 사이의 현안으로 떠오른 문제들에서 ‘총학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명확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얼마 전 양 캠퍼스 총학의 주도로 추진된 ‘온라인 대동제’ 계획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다시 급등하면서 조건부 대면 수업 재개를 계획하고 있던 학교는 다시 전면 비대면 개강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양 캠퍼스 총학은 지난 9월 2일 종래와 같은

방식의 축제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이른바 ‘온라인 대동제’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학생들로부터 온라인 축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양 캠퍼스 총학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 65%에 달하는 응답자가 온라인 축제 시행에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양 캠퍼스 총학은 사전 의견 수렴이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온라인 축제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학기 초 ‘새내기 배움터’를 비롯해 크고 작은 자치활동이 연이어 무산된 상황에서 온라인 축제는 자치조직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총학 나름의 교육지책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총학이 다른 역할을 하길 바란다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캠 총학 최인성 회장은 “코로나 19가 불러온 이례적인 상황이 학생회가 해결해야 할 더 많은 과제를 불러왔고, 그에 따른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

했습니다. 그에 따라 사회상과 학생들의 요구 변화에 발맞출 학생자치조직의 구조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본래 대면 모임과 회의를 전제로 하고 있던 자치조직의 선출 및 의결, 실무 과정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식하기 위한 최적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기초 단위로 갈수록 학생회 구성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아 현재 미비한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문과대 학생회의 최재식(철학 2016) 회장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극단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현재 자치활동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고 싶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하다면 대면 체제로의 복귀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 사회와 대학의 모습이 비대면 중심으로 변화한다면 피할 수 없게 될 학생회의 변화에 대해서도 고민한다”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보다 민감하게 포착하고 의제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대면 온라인 체제가 오히려 장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은 “학생자치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더라도 그 의미와 생명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인 연원에서 비롯된 정체성을 기억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 내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대학, 지역사회, 국가, 나아가 세계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맥락 위에 있다는 인식이 그것입니다.



2020학년도 2학기 온라인 폭력 예방 교육

- 1. 목적 : 성 평등 인식을 함양하여 안전하고 상호 존중하는 학내 분위기 조성
- 2. 대상 :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재학생 (학부/대학원)
- 3. 방법 : 성평등상담실 홈페이지 (<http://web.khu.ac.kr/~happyou>) 메인에 탑재된 <학생용 폭력예방교육> 영상 시청 후 형성평가 답안 작성하여 제출
- 4. 형성평가 제출 :
 - 1) 구글 설문 양식으로 실시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바로 제출
 - 2) 한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happyou@khu.ac.kr로 제출
 - ※ 응답자 중 만점자 50명을 추첨하여 사은품을 증정
- 5. 교육기간 : 2020.09.09.(수) ~ 2020.10.14.(수) [5주간]
- 6. 결과발표 : 2020.10.16.(금) (성평등상담실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7. 교육내용

교육명	
대학과 인권	성희롱 개념 및 특징 Yes or No 입장정리
젠더기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학 만들기	디지털 성범죄 개념 및 특징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	디지털 성범죄 해체하기
청년을 가둔 MAN BOX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성차별이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개념 및 특징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보기
성희롱 개념 및 특징	어떻게 대처할까? : 피해를 겪었다면 / 목격했다면

8. 문의 : 02) 961-0208 / happyou@khu.ac.kr